

지역 실정 맞는 치안정책 추진

도 자치경찰위원회, 도민 설문조사 활용 치안시책 추진 2호 지휘·명령 발령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최근 발표한 도민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생활주변의 치안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시책을 수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2호 지휘·명령을 발했다.

지난 8월 27일 발표된 설문조사에 응답한 도민 1,706명은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해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와 범죄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답변(47.9%, 817명)했다.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성범죄 근절(34.4%, 587명)을,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구역 내 단속 확대(34.3%,

585명)와 시설개선(21.2%, 361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시책을 수립하고, 자치경찰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5점 만점에 2.82점)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의 업무활동 중 자치경찰제 홍보활동도 병행할 것을 전북경찰청장에게 지휘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홈페이지 구축, 모션 그래픽 등 동영상 콘텐츠와 카드뉴스 제작을 통한 SNS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고,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의 오프라인 홍보수단을 공유하는 등 종합홍보 계획을 수립해 자치경찰 인지도 향상에 힘쓰기로 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회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도민들은 경찰 주도로 이뤄졌던 치안행정에 참여가 보장되고, 참여과정 중에 제언된 사항들이 치안정책에 반영돼 결국에는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으로 도출되기를 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설문조사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의 의견을 처음 듣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설문결과 도출된 생활주변의 치안 불안 요소들이 해소돼야 더욱 의미가 있는 만큼, 설문결과가 면밀히 분석돼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더 편리하고 안전해진다

단순한 주택 개보수-에너지 절약되는 그린 리모델링 등 추진 예정

전북도에서 최초로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된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주거 취약 계층의 노후화된 불량 주택을 호당 400만 원 이내 개·보수를 지원하는 '희망의집'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까지 380억 원을 투입해 14개 시·군 11,818가구의 주택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으며, 올해도 도내 417가구에 19억 원을 투자해 현재까지 313가구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3일

군산시 소재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 세대를 방문해 열악하고 노후된 주거현장을 확인하고, 거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해당 세대는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가구로 보일러 등 난방시설이 없어 겨울철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펴 생활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통해 보일러 설치와 도배·장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내년에는 에너지가 절약되는 편리

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방향이 전환될 전망이다. 2022년부터 복권기금 등의 국비를 확보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도배·장판 등 단순한 주택 개보수에서 벗어나 에너지가 절약되는 그린 리모델링, 주거 취약계층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 농촌활력분과 회의 개최

전북도가 김제 벽골제 마을에서 삼락농정위원회 농촌활력분과 3차 회의 를 지난 2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규로 발굴된 농촌 생태문명 가치 제고, 사람 찾는 농촌조성 분야 등 15개 세부 신규시책과 생

생마을 만들기 3단계 계획 추진방향, 향후 포럼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올해 수립 예정인 생생마을만들기 3단계 기본계획 추진 방향에 대해 농촌활력분과 위원들의 관심과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생생마을 만들기 3단계 계획 추진 방향은 '사람찾는 활기찬 전북농촌 만들기' 비전 아래 생생마을을 300개, 신규 리더 300명, 일자리 300개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 활성화, 실천 주체 역량 강화,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등 3개 추진전략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10월까지 최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촌활력분과 포럼은 오는 10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한국스피치,올림픽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업,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거시기장터 5차 '제철제맛' 전주 한옥도 배

제철 농산물 판촉행사 기획전 12일까지 진행

전북도(도지사 송하진)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 (재)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과 함께, 제철 농산물 판촉행사 '제철제맛' 5차 기획전을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거시기장터(jbplaza.com)에서 진행한다.



전주 한옥도 배

'제철제맛'은 도내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려 신규고객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매월 한 품목을 정해 소개하는 기획전으로 올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9월 '제철제맛'으로 선정된 전주 한옥도 배는 1930년대부터 전주 원동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를 시작, 배나무 생육에 최적의 환경인 양지바르고 물 빠짐이 좋은 황토땅에서 오랜 역사의 숨은 노후우로 재배되

매할 수 있으며, 1상지는 시중보다 저렴한 2인3,120원에 소비자가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NH농협은행, 전북은행 카드로 결제 시에는 10%를 추가로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구매는 거시기장터(jbplaza.com)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제철제맛' 전주 한옥도 배 기획전 팝업창을 클릭한 후, 제품 페이지에서 주문하면 된다.

배송 중 제품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삼중 완충망 보강과 고품격 프리미엄 케이스로 설계 포장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편하게 집에서 무료 배송으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시기장터와 고객센터(070-4176-9299)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지속가능 생태문명 시대 도약 적극 협력

전북도, 시군 소통회의 열고 추진사업 공유·향후 발전방향·추진 논의

전북도가 시·군과 손잡고 생태문명 시대로 발을 내디딘다.

도는 지난 3일 생태문명 관련 도·시군 소통회의를 열고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시·군과 함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도 신현영 대도약장년과장과 시·군 기획부서장은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생태문명의 공유·확산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를 펼쳤다.

도와 시군은 이날 생태문명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부단체제를 단장으로 하는 '생태문명 TF팀' 구성·운영 필요성에 대해 서로 공감했다.

TF팀을 통해 생태문명의 대표사업 발굴과 주민 생활, 주요정책 수립·추진 시 생태문명 가치가 반영되도록 추

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시군별 생태문명의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했다.

남원시의 '감성 수목정원을 통한 힐링 생태도시 조성', 임실군의 '초광역 삼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청정전북, 그린에너지, 도농상생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영상을 통해 논의됐다.

이외에도, 오는 11월 '새로운 미래, 함께 만들어 가는 생태문명 시대'를 주제로 기초 강연, 정책 포럼 분과 토론회 및 기업의 생태문명 실천사례 등을 담은 '생태문명 컨퍼런스'를 개최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생태문명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키고, 대도약 정책협의체, 도민 참여단, 전북

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대도약 정책포럼'을 통해 생태문명을 공론화·구체화해 종합계획(2022년~2026년)을 오는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신현영 도 대도약장년과장은 "생태문명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공존하면서, 미래성장을 위한 신산업까지 아우르는 미래가치다"며 "도와 14개 시·군이 체계적으로 협력해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시대로 도민과 함께 도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3일 지속가능한 '생태문명 선도 비전' 선포에 이어 7월에는 전국 최초로 '생태문명 선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추진 기반을 마련했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가운데 생태문명 핵심전략 및 과제도출을 진행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발달장애인에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전북도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 '행복GPS' 125대를 무상 보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통신비를 2년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수요조사 후 신청을 받아 도내

발달장애인 주간 및 방과후활동 제공 기관 19곳의 이용자 중 실종 예방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125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행복GPS'는 손목시계 형태로 착용해 모바일 앱을 통한 착용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